

# 새만금에 필 '꿈의 캠퍼스'...전국구 명문대학 꿈꾼다

## it 피플

### 군산대 총장 채정룡

국립 군산대학교는 요즘 국내 다른 대학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최근 2년여에 걸쳐 추진 중인 야심찬 대형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파격적인 국고 지원을 받는 등 개교 이래 가장 돋보이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학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졸업생 취업률도 전국 국·공립대학 중 상위그룹이다. 건축공학과,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등 전국 취업률 10위권 안의 학과가 16개나 된다. 군산대학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구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대학교가 짧은 기간에 주목할 발전을 보인 데는 채정룡 총장(59)의 열정과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핵심 프로젝트는 대부분 채 총장이 취임한 2010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군산대학교가 지원을 확정받은 국비지원금만 해도 1330억원이다.

25일 군산대학교 총장실에서 채정룡 총장을 만나 학교의 발전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미래의 플랜에 대해 들었다.

### 채정룡 총장 프로젝트

1953년 군산 태생. 고려대 체육학과 이학 박사. 1983년 군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부임. 2005~2008 대한조정협회 국제사업 이사. 2000~2004 한국운동과학회 부회장. 2005~2007 세계조정연맹 총회 한국대표. 2010. 3~ 군산대학교 6대 총장/2010 총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 2010 대한조정협회 부회장  
상훈: 1991 체육부장관 표창, 2008 전북 체육상 연구상  
저서: 운동생리학(2010), 인간과 스포츠의학(2001) 등



### 대학 안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파격적 국고 지원 2017년까지 새만금 일대 캠퍼스 완공 "자동차·조선 등 맞춤형 인재양성 가능"

### 군산대, 졸업생 취업을 급상승

신입생, 수도권권선 지원자 크게 늘어 국립대 최초 학과별 정원연동제 운용

- 현재 군산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지.

"군산대학교가 주관하는 군산-새만금 산학연관 컨소시엄이 지식경제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70억원과 도비를 포함해 총 55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내 오식도동의 부지 3만9910㎡(약 1만2000평)를 무상관리전환 받아 새만금 일대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캠퍼스가 2017년 완공되면 미래형 국가사업을 선도하는 산학연관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새만금 산업단지 캠퍼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국가산업단지와 대학을 통합한 공간으로 보면 된다. 이곳에는 산학융합지구(QWL 캠퍼스), 새만금신재생에너지융합특성화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그린업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자동차부품 기술혁신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 곳에 기계·자동차산업, 조선,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관련학과를 이전해 맞춤형 인재 6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3~4학년이 되면 새만금 캠퍼스에서 강의 듣고, 실습을 하고, 기업 인턴십도 받는다. 교수들은 지역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공동 기술개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 기존의 산학협력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학이 기업체가 있는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기업, 학교, 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젊은이들의 취업을 촉진시키자는 사업이다."

- 군산대학교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는 언제인가.

"올해 신입생 2077명 중 군산지역 학생은 15.4%였고, 84.6%가 타 지역 학생이었다. 서울 170여 곳, 경기도 270여 곳 등 수도권에서 지원한 고등학교가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군산대가 전국구 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 군산대학교는 졸업생 취업률이 높아 다른 대학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 높지 않았다. 군산대와 비슷한 8개 대학 취업률을 조사하면 7~8위의 하위권이었다. 취업지원본부를 설립해 인력을 보강하고, 학과장들을 만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꾸준히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덕분에 올해 취업률은 작년보다 5% 올라 8개 대학 가운데 3위다."

- 군산대학교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면.

"학과별 정원연동제를 운용한다. 아마 국립대에서는 최초일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구조정을 위해 학과 통폐합을 실시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대신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1년에 한 번씩 학과평가를 한다. 하위 10개 학과의 정원을 줄여 상위 10개 학과에 배분하는 것이 정원연동제이다. 올해도 27명을 상위 학과로 보냈다."

- 평소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첫째 자신감을 가져라. 둘째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세 번째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다. 살아보니 이 세 가지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한 좋은 지름길이다. 세 가지만 갖추면 어차피든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준다."

군산 |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2017년 새만금이 달라집니다" 2010년 3월 취임한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잇달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대학교 채정룡 총장이 군산시 대학로 캠퍼스 총장실에서 1만 2000여 평 새만금 부지에 조성될 산업단지 캠퍼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산 | 김민재 기자 minre@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 '춤 추시는 총장님' 신입생과 댄스스포츠

군산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플랜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채정룡 총장에게는 재미있는 별명이 있다. 바로 '춤추는 총장님'. 채 총장은 전북 지역에 댄스스포츠를 전하고 저변을 넓힌 주역이다. 교수 시절 처음 댄스스포츠를 접한 채 총장은 1999년 군산대 평생교육원에 댄스스포츠 과목이 생기자 직

접 등록해 6년을 익혔다. 이후 전국대회에 출전해 세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춤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시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를 실질적으로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으로 군산대학교는 매년 전국 규모의 총장배 댄스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북지역 댄스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채 총장은 "체육인으로서 댄스스포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2011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에는 총

장이 학생들 앞에서 직접 댄스스포츠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채 총장은 댄스스포츠 못지않게 조정과도 인연이 깊다. 1983년 군산대학교에 부임하면서 조정부를 맡은 이후 지도교수는 물론 감독, 코치 등 1인3역을 하면서 혼자 군산대 조정부를 키웠다. 이런 노력을 결실해 맺어 군산대 조정부 출신의 국가대표를 6명이나 배출했다. 현재 채 총장은 대한조정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제사업이사 자격으로 2013년 총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기여했다. 양형모 기자



2011년 군산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장에서 채정룡 총장(왼쪽)이 군산대 재학생과 댄스스포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군산대학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donga.com 트위터@simss23

## TV 프로그램 27일(금)

채널 A	KBS 1	KBS 2	MBC	SBS	TV조선	JTBC	MBN	EBS	지역민방
※ 5: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6:50 굿모닝 채널A 7:50 박종진의 쾌도난마 8:40 특집 불멸의 태극전사 9:40 신문을 보는 세상	6:00 뉴스광장 7:50 인강국장-명품발 열 걸러리 8:25 아침마당 9:30 뉴스(수화방송)	8:00 8야점 뉴스타임 9:00 TV소셜-사랑이 사랑아 9:40 여유만만	6:00 뉴스투데이(1, 2부) 7:50 아침드라마-천사의 선택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뉴스 9:45 기쁜 좋은 날	6:00 런던 2012 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1, 2, 3부) 8:30 아침연극-내 인생의 단비 9:10 좋은 아침 10:30 런던 2012 축구 남예선 (대한민국:멕시코)	6:00 최, 박의 시사토크 '판' 7:00 TV조선 모닝뉴스 '깨' 8:00 꼬마버스 타요 8:30 루트 사랑시대 9:00 올림피아드 TV를 말한다 10:00 생생 라이브 11:00 세계테마기행(고대 문명의 요람 티키 동부 2부) 11:50 정오뉴스 12:00 수상한 식탁 1:00 최연우 노홍철의 매직홀 스페셜 2:00 TV조선 뉴스와이드 '참' (1, 2부) 4:00 최, 박의 시사토크 '판' 5:00 장성인의 시사토크	※ 5:50 뉴스 모닝 6:00 맘대맘 7:00 뉴스전시대 7:40 특집 2012 런던 올림픽 8:10 시청자의뢰 9:10 닥터의 승부 10:10 휴먼다큐 스페셜 11:20 정담 살아요 12:00 JTBC뉴스 정오의 현장 12:20 수목미니시리즈-친애하는 당신에게 1:30 탐사코드 2:30 특집 2012 런던 올림픽 3:00 뉴스3-사시간 4:00 뉴스4-한반 경제 4:40 70이사는 법 4:50 다큐스톡(인도네시아 카이강 상어 기다리는 마을) 5:50 맘대맘 잠마 바퀴라	※ 4:50 굿모닝 MBN(1, 2부) 7:00 생방송 매일 경제 8:00 MBN뉴스투데이(1, 2부) 10:00 뉴스광장(1, 2부) 12:00 뉴스 1:00 뉴스 1 2:00 시사문서점 정지인 3:00 뉴스M(1, 2부) 5:00 정윤갑의 집중분석 6:00 건강칼럼선4 6:10 명의 7:00 로드다큐(맛있는 여행) 8:00 MBN뉴스8 9:00 개그공화국 스페셜 10:00 현장리포 특종세상 11:00 교수의 비법 할금일 ※ 1:00 소나무	6:00 헬스 투데이/30 진로상담 7:00 트랜스 포머 프리덤 7:30 꼬마 행진 피규/45 북북박사 에디 8:00 행복마을 미술상지/10 한글인구 이라차 8:20 우당탕탕 아이쿠 8:30 꼬마요리사/50 케니달 9:00 인형극장 옛날 옛날에/15 호미대 집 9:40 행복마을방 옛이치비 10:00 꼬마자동차 붐뽕/20 여아 전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부모(영양전문가) 여예스터 박사의 10년 철거 사는 법 12:00 EBS초등학교 13:00 세계의 아이들/40 명의의 14:30 글로벌 특강 15:00 수확의 원리 마태마티카 15:10 개구리와 친구들/35 배탈때를 넘어 친구들 16:00 한글과 컴퓨터/10 한글재능 대결생애 16:20 피규어/30 꼬마요리사/50 개그왕 17:00 인형극장 옛날 옛날에/15 호미대 집 17:40 물리와 함께하는 교통신안 이야기 17:40 우당탕탕 아이쿠 18:00 어린이드라마-별들의 합창 18:30 행복마을방 옛이치비/50 외과과를 친구들 19:00 배와 조니/10 트랜스포머 프리덤 19:35 하늘에서 본 세계 19:40 세계의 무용 문화유산 20:50 세계의 아이들 (네림, 히말라야 세르파족 아이들) 21:30 한국타리(최명) 21:50 영의(한국의인) 여성질환-경관기 질환 22:40 어머니 나라 23:10 더미아(한산: 화산의 나라, 에어랜드) 24:05 고급요리(하이치오 7번지)	TJB (대전) 042-281-1101 18:15 세상발견 유레카 20:50 전국 토크10 가요쇼 24:15 저우기 1:10 특집기행(중도에 부는 새로운 바람, 한) CJB (창원) 043-279-3800 11:00 세상발견 유레카 12:30 리얼리얼 동화나라 18:25 생활속 유레카 24:15 특집 6회 육원포도박송이아기요제 20:30 뉴스인 24:15 TV유랑단 KNN (부산 경남) 051-850-9000 18:30 뉴스 특이 17:35 세상발견 유레카 20:50 토크와 미라클 1:40 시사기획 2:40 어머니의 고향 TBC (대구) 053-760-2200 11:00 세상발견 유레카 18:25 지중해 미라클 1:40 시사기획 2:40 어머니의 고향 UBC (울산) 052-228-6200 12:30 영상모험 한국 100경 17:35 인간 탐험 18:25 지중해 미라클 2:40 시사기획 2:40 어머니의 고향 KBC (광주) 062-650-3094 17:30 시사토크 18:30 세상발견 유레카 20:50 토크와 미라클 24:15 특집 6회 육원포도박송이아기요제 20:30 뉴스인 24:15 TV유랑단 G1 (경원) 033-248-5000 12:30 영상기록 시간속으로 18:30 인형극장 옛날 옛날에(좋은 생명이야) 20:25 뉴스인 21:30 한국타리(최명) OBS (경인) 032-670-5000 17:10 출근길 학교 속속속 19:45 OBS뉴스 M 23:10 인간다자 23:05 시사기획 판 24:15 테마스쿨